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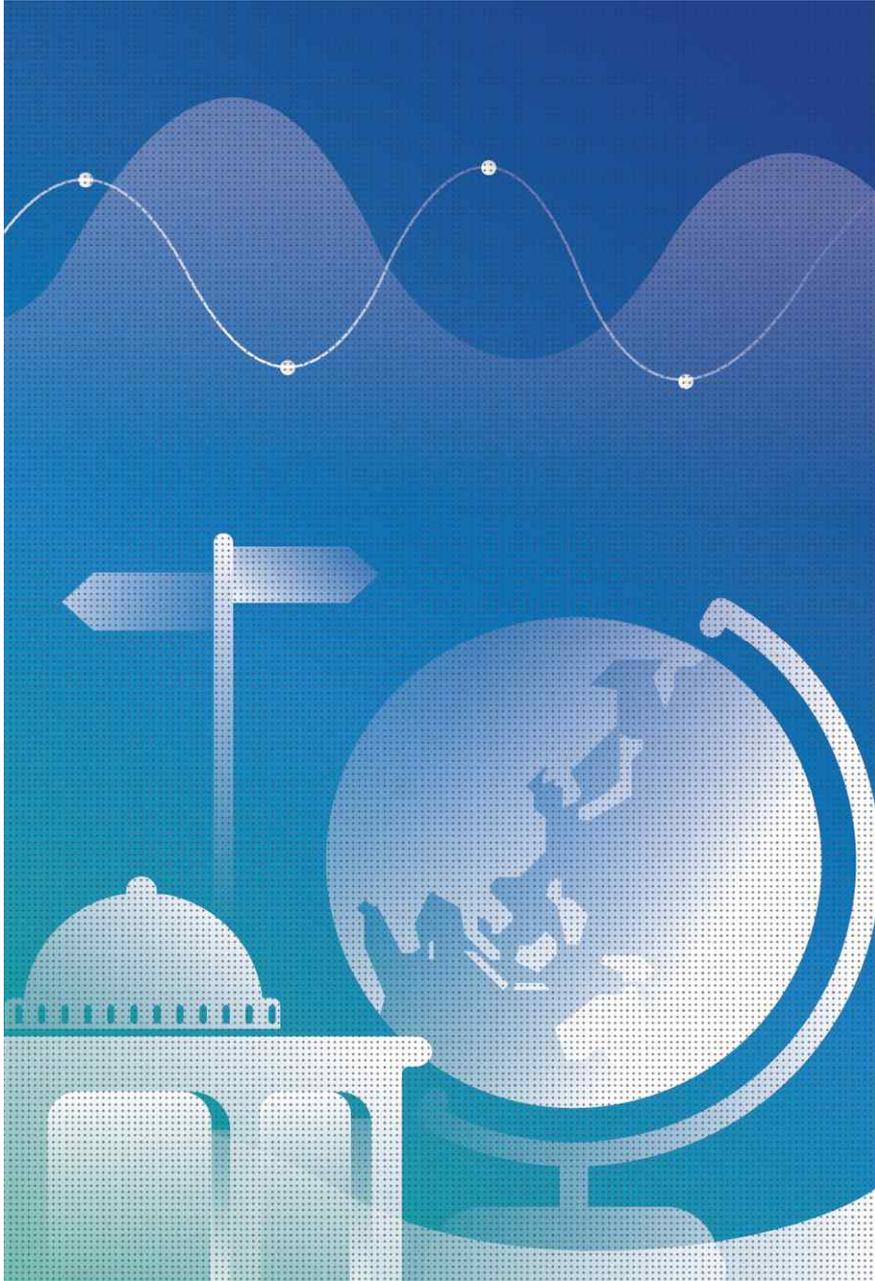
2021 ISSUE REPORT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2(2021.04)

##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시사점



### CONTENTS

- I.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 II. 미르지요예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 III.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문별 산업정책
- IV.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현황 및 전망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 I.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 **(코로나19 동향)**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3월 27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 30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 8만 2,536명, 누적 사망자 수 626명을 기록함.
- 2020년 8월 초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981명으로 정점에 달하였고 9월 말~10월 초에 2차 확산이 있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점차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음. 2021년에도 2월까지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으나, 3월 이후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
- **(경제동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995년(-0.9%)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1.6%)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 이어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2021~22년에는 대외경제환경 개선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지출 확대와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 추세에 따라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대응 펀드 조성)**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부문 지원과 취약업종, 중소기업,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3.3억 달러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함.
- 이 기금은 보건·의료 부문에 30.8%, 도로·상수도·학교·스포츠시설·주택 등의 교통 및 사회인프라 건설에 27.2%, 항공·관광·에너지 등의 산업 부문 지원에 18.9%, 취약계층 지원 및 고용 지원에 11.2%, 병원 및 방역 시설 확충에 8.1% 등이 지원되었음.

### II. 미르지요예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주요 전략)** 중장기 발전전략, 연도별 발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 민주주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2021 발전전략, 연도별 국가 프로그램, 2035 발전전략 등이 수립되었음.
- “**2017~2021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와 사회 건설 완성,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경제발전과 자유화, 사회 발전, 안보·민족간 화해 및 종교적 관용 등 중점 5개 부문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매년 **연도별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대통령 연두교서 형태로 발표하고 있음. 2018년에는 ‘기업활동,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 지원’, 2019년에는 ‘투자 활성화와 사회발전’, 2020년에는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 발전’, 2021년에는 ‘청년 지원 및 국민 보건 증진’이 국가프로그램으로 추진됨.
-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은 “청년 지원 및 국민 보건 증진의 해”**로 선포되었으며,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보건·의료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발표된 바 있음.
- 또한 2018년에 장기전략으로 수립된 “**2035 발전전략**”은 2035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 50대 주요 경제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국가행정 개혁, 경제 및 사회 발전, 혁신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경제정책)**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민영화 정책:** 2020년 2월 발표된 “2020~2021 경제구조 개혁 로드맵”과 10월 발표된 “국가자산의 급속한 사유화 개혁”에 관한 대통령령 등을 통해 농업, 광업, 항공, 에너지 등 주요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20년 5월 채택된 “2020~2025 우즈베키스탄 은행 시스템 개혁전략”을 통해 은행 부문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2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옵저버국으로 가입하였음. 또한 미르지옌오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2005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WTO 가입 협상을 2018년부터 재개하여 추진하고 있음.
- **투자정책:** 2020년 12월에는 “2021~2023 투자프로그램 실현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한국, 중국, 터키, 일본, UAE 등 주요 투자국들로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 최대 10년 비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빈곤감축 정책:** 2020년 3월 “경제발전과 빈곤감축 정책의 근본적인 재개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와 함께 기존의 경제산업부를 “경제발전 및 빈곤감축부”로 재조직하며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Ⅲ.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문별 산업정책

- **(주요 산업정책)**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디지털산업 발전정책:**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및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부문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각 산업의 디지털 방식 적용을 통한 원자재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2020년 10월 “2030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IT 파크를 설립하고 IT 부문에서의 대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정책:** 2019년 10월 대통령령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2030 녹색경제로의 전환 전략”이 수립·추진되고 있음.
- **섬유산업 정책:** “2018~20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가운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원면 위주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 정책:** 정부는 2019년 6월 “2025년까지의 자동차산업 발전정책”과 2019년 7월 “2023년까지의 급속한 발전방안”을 통해 생산설비 현대화 등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추진하며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증대와 고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자유경제지대:** 2021년 3월 기준 22개의 산업, 제약, 농·어업, 관광 분야의 자유경제지대를 운영하며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제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IV.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현황 및 전망

- **(양국의 협력 현황과 전망)**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다음 부문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부문의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체결 추진과 WTO 가입 지원:** 양국은 2021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정(STEP)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바, 무역협정 체결시 신북방 지역으로의 한국 상품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또한 양국간 합의를 통해 한국의 전문가들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에 대한 정책자문을 진행하고 있음.
- **제조업·농업 부문 기술지원, 투자 및 정책 자문협력:** 양국간에 섬유산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술협력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관련 부문의 실질적인 산업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함께 자유경제지대 운영에 대한 자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제조업 부문의 협력이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설비 개선 및 광물 부문 협력:** 에너지 부문 노후설비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가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의 에너지 설비 개선사업 진출과 양국 간 광물 부문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디지털산업 협력 확대:** 2021년 1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디지털 뉴딜 산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전자정부 등의 사업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무역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 확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구 증가, 도시화 등으로 환경 부문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우즈베키스탄은 이들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분야의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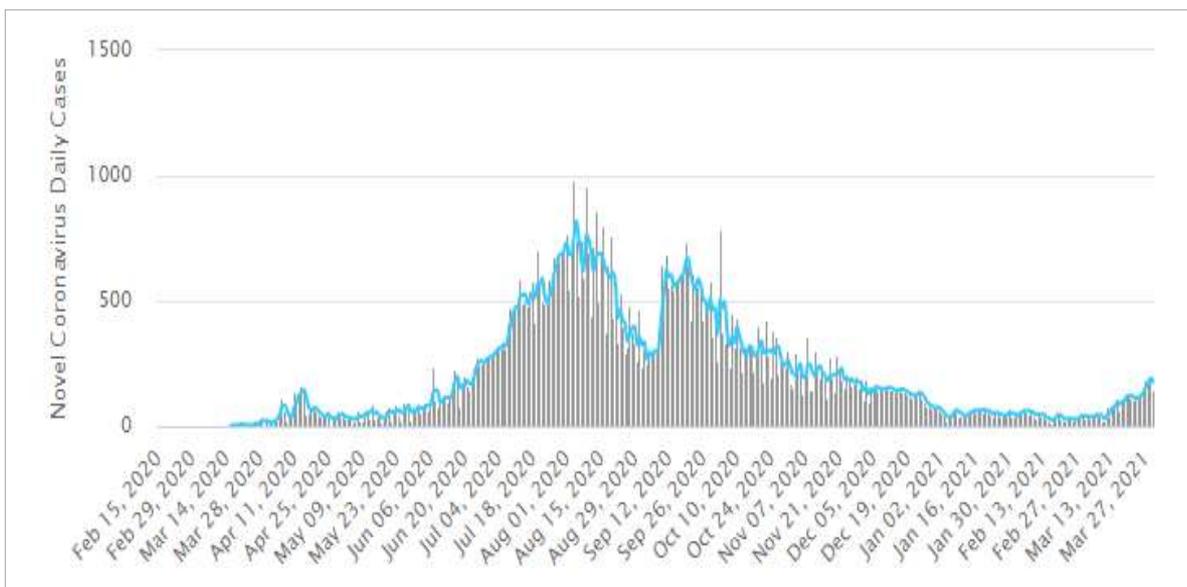


## I.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3월 27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 30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 8만 2,536명, 누적 사망자 수 626명을 기록함.
- 2020년 8월 초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981명으로 정점에 달하였고 9월 말~10월 초에 2차 확산이 있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점차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음. 2021년에도 2월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으나, 3월 이후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3월 말 이후 모든 공항을 폐쇄하고 4월 초부터 타슈켄트와 나망간 등 주요 도시들에서 통행허가증이 발급된 필수목적의 경우에만 예외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확진자 발생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음. 이와 동시에 정부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약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영업을 중단하였음.
- 2020년 8월 15일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도시 내 차량 운행 제한 폐지, 국내 도시 간 이동과 항공 및 철도 운행 제한 완화, 대규모 시장 및 쇼핑몰과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한 바 있음.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



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통계)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5년(-0.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1.6%)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 이어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에는 전년대비 제조업, 서비스 부문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고 소매판매 및 화물·여객 운송량도 크게 감소하였음. 숨(Sum)화 평가절하(달러당 평균환율이 2019년 8,836.4숨에서 2020년에는 10,053.2숨으로 13.8% 상승)와 수입제한 조치<sup>1)</sup>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10%를 초과하였으며, 실업률도 2019년 5.5%에서 2020년에는 7.5%로 상승하였음. 전반적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이후 농·어업 및 건설업의 성장이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21~22년에는 대외경제환경 개선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5%대로 회복되나, 정부지출 확대와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 추세에 따라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13.9%의 교역규모 증대(수출 9%, 수입 17% 증가) 등으로 5.0%의 경제성장률 회복이 전망됨. 또한 숨화 환율의 안정과 수입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안정적인 상품 공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20년의 12.9%에서 10.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코로나19 영향

단위: %, 억 달러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5.8	1.6
실업률		5.5	7.5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		7.0	2.6
소비자물가상승률		14.5	12.9
산업생산 증가율	제조업	8.9	-1.3
	서비스	5.2	-2.0
	농·어업	2.5	3.3
	건설업	22.9	9.1
소매판매증가율		9.1	3.2
운송량 증가율	화물(중량 기준)	1.8	-4.8
	여객 수	3.6	-16.7
교역액	수출액	138.9	110.0
	수입액	211.9	171.0
	총교역액	350.8	2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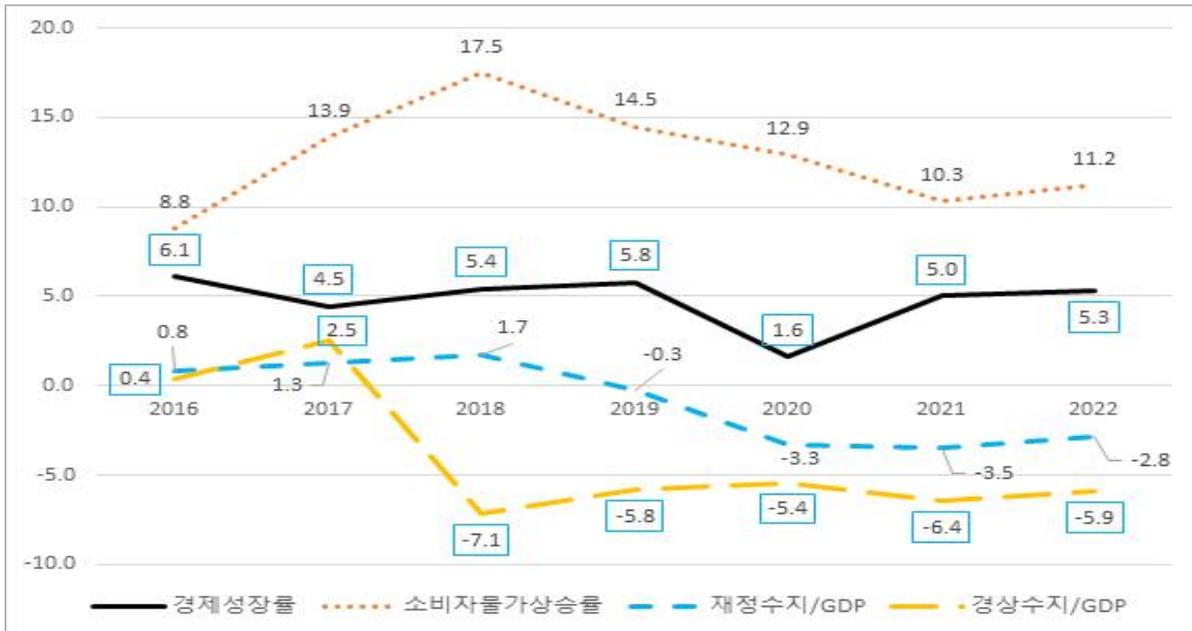
자료: IMF,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EIU

1)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년 8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했으며, 정부 지분 50% 이상 기업의 분기당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통제함. 수입제한 대상에는 외국 정부 및 기구의 지원 기금을 통한 수입품과 국방 및 안보 등의 필요에 의한 수입품은 제외됨.



[그림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2016~2022)

단위: %



자료: IMF

### 코로나19 대응 펀드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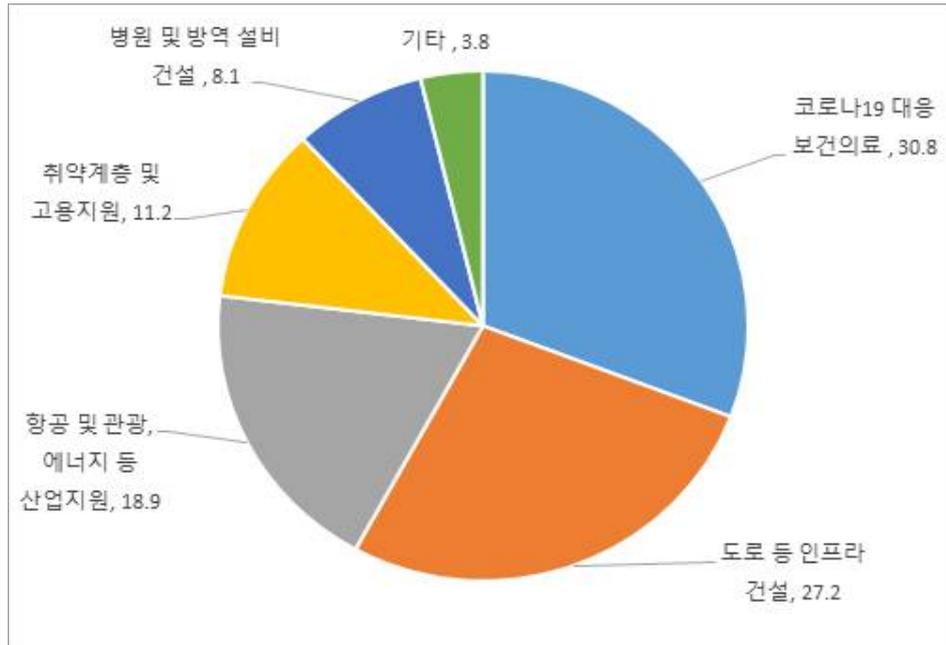
- **(펀드 조성)**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부문 지원과 취약업종, 중소기업,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기대응펀드를 운영하였음.
  - 당초 2020년 3월 정부는 GDP의 1.5% 규모인 위기대응펀드 10조 숨(9.95억 달러)을 조성하였고, 이 가운데 9.87조 숨(9.82억 달러)은 세계은행, ADB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나머지 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됨.<sup>2)</sup>
  - 2020년 9월 초기 조성기금의 95%가 지출됨에 따라 2020년 11월 정부 재정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각각 50%씩)으로 3.4조 숨(3.38억 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조성됨.<sup>3)</sup> 이후 2020년 11월 말 기준 전체 대응예산 13.4조 숨(13.3억 달러)의 88%인 11.79조 숨(10억 달러)의 금액이 지출되었음.
- **(펀드 지원 내용)**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피해업종과 취약한 자영업 지원 등의 정책이 실시됨.
  - 지출 항목별로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부문(의료설비·치료제 구입)에 30.8%, 도로·상수도·학교·스포츠시설·주택 등의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건설에 27.2%, 항공·관광·에너지 등의 산업 부문 지원에 18.9%, 취약계층 지원 및 고용 지원에 11.2%, 병원 및 방역 시설 확충에 8.1% 등이 지원되었음.<sup>4)</sup>

2) 2020년 우즈베키스탄 숨 평균환율 1달러=10,053숨 기준.  
<https://www.gazeta.uz/ru/2020/04/23/anti-crisis-fund>  
 3) <https://www.gazeta.uz/ru/2020/11/26/anti-crisis-fund>  
 4) <https://www.gazeta.uz/ru/2020/11/26/anti-crisis-fund>



[그림 3] 우즈베키스탄의 위기대응자금 항목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https://www.gazeta.uz/ru/2020/11/26/anti-crisis-fund/>



## II. 미르지요예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발전전략

#### 중장기 발전전략, 연도별 발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 민주주의 등 추진

- (2017~2021 발전전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2월 발표된 “2017~2021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와 사회건설 완성,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경제발전과 자유화, 사회 부문 발전, 안보·민족간 화해 및 종교적 관용 등 중점 5개 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sup>5)</sup>
- 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개혁 및 안정, 기업환경 개선과 민영화 및 대외무역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발전, 농업 현대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 “2017~2021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5대 과제	주요 방향
국가와 사회 건설 완성	- 의회 및 정당의 역할 강화 - 전자정부 시스템 완성 - 정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 - 시민사회 및 언론의 역할 강화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 사법기관의 독립성 확보 -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 범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 법률 서비스 제도 확립
경제 발전과 자유화	- 거시경제안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 -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 - 농업 현대화 - 정부 부문 약화 - 중소기업 발전 - 지역 균형발전 - 관광 발전
사회부문의 발전	- 지속적인 국민 고용향상 및 실질소득 증대 - 국민의 사회보장 및 건강보호 - 여성의 사회·정치 활동 증대 - 주택 건설 프로그램 - 도로·교통 및 통신과 사회적 인프라 현대화 - 교육 및 문화와 예술 발전 - 청년 정책 확립
안보, 민족 간 화해 및 종교적 관용, 대외정책	- 국가의 독립과 주권 확립 - 우즈베키스탄 주변의 안전지대 및 우호적 대외관계 형성 -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

자료: <https://www.gazeta.uz/ru/2017/02/07/strategy>

5) <https://www.gazeta.uz>



-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매년 연도별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형태로 발표되고 있음. 2018년에는 “기업활동,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 지원”, 2019년에는 “투자 활성화와 사회발전”, 2020년에는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발전”, 2021년에는 “청년 지원 및 국민 보건증진”이 국가 프로그램으로 추진됨.

[표 3] “2017~2021 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연도별 국가프로그램

연도	국가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2018	기업활동,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 지원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 펀드,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단일 사회세를 제외한 세금 면제</li> <li>- 인터넷 뱅킹 등 은행 부문의 디지털화 추진</li> <li>-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의료 디지털화 추진</li> <li>- 관광객 대상 행정 및 비자 절차 간소화</li> </ul>
2019	투자 활성화와 사회 발전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규모 10억 달러의 직접투자펀드 설립(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장기투자 및 우즈베크 민간기업과 외국투자자 간의 협력 지원, 투자환경 개선), 직접투자펀드가 운영하는 100% 정부 지분의 주식회사 설립</li> <li>- 외국인 투자자 대상 3년 기간의 투자 비자 제도 도입, 3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10년 거주비자 제공</li> <li>- 우즈베키스탄 재건펀드와 UAE 발전펀드가 공동으로 투자한 우즈베크-UAE 투자 기업 설립</li> </ul>
2020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발전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 시스템 개혁</li> <li>- ‘전자의회’ 도입을 통해 국민과 의회 간의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li> <li>-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출납 시스템 구축</li> <li>- 80만 다중 인터넷망 구축 및 1만 2,000km 통신망 구축</li> <li>- 통합 쌍방향 교통시스템 ‘우즈트랜스’ 구축</li> <li>- 정보통신 기기 및 디지털 경제 활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li> <li>- IT 기기 부문 생산의 잠재력 강화</li> <li>- 대학의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li> <li>- 해외 유명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li> <li>- 의료 기관 서비스 및 제약품 공급 원활화</li> </ul>
2021	청년 지원 및 국민 보건 증진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li> <li>- 관광 산업 활성화</li> <li>- 전력 및 천연가스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관세 폐지</li> <li>- 자영농에 대한 국세청 전자조세 시스템의 제공</li> <li>- 국가 및 공공건설 전자 시스템 도입</li> <li>- 환경 파괴에 대한 보상 수립</li> </ul>

자료: <https://strategy.uz> (우즈베키스탄 Development Strategy Center)



- **(2021 국가 프로그램)** 대통령은 2020년 12월의 국정연설에서 2021년을 “청년 지원 및 국민 보건 증진의 해”로 선포하고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보건 및 의료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관련 예산 전년대비 32% 증액) 정책을 발표함.
- 2021년의 국가 프로그램에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빈곤퇴치, 청년고용 및 농업지원과 함께 관광 부문 지원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 부문에서는 50만 명의 청년 및 20만 명의 여성 취업과 함께 빈곤퇴치, 농업 종사 희망 청년층에 최대 1헥타르의 농지 제공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sup>6)</sup>
-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도 1만 km의 농촌지역 도로 건설, 1.5만 km의 전력망 설비 개선, 700여개 농촌 주거지에 대한 수도 공급, 주택 건설(도시 2.1만 호, 농촌 8.8천 호) 등이 계획되고 있음.
- **(장기발전전략)** 2035년 우즈베키스탄의 세계 50대 주요 경제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2018년에 “2035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은 국가행정 개혁, 경제 및 사회 발전, 혁신 및 기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sup>7)</sup>
- 국가행정 개혁에서는 법적 토대 완성, 국민들의 정치문화 수준 향상, 효율적 개혁 실현, 국가행정 제도 완성 등이 주요 내용임.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평가되는 민주주의의 지수, 전자정부 지수, 부패 지수, 자유화 지수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함.
- 경제 부문에서는 제조업 발전, 서비스 및 농업 부문 발전, 기업 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이 주요 정책내용임. 또한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주요 산업으로 농업, 섬유, 에너지, 광물 및 철강, 자동차, 관광, 운송 등 7개 분야가 선정되었음.
- 사회 부문에서는 교육 및 노동시장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발전을 목표로 함. 2035년에는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GDP의 7.5%(2017년 6.4%)로 증대, 보건에 대한 지출을 국민 1인당 1,000달러(2017년 40달러)로 증대, 평균수명의 80세(2017년 72.3세)로의 연장 등을 목표로 함. 이외에 UN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랄해 환경 개선 등 환경부문 개선도 주요 정책과제로 진행되고 있음.

[표 4] “2035 발전전략”의 경제부문 실행 목표

주요 내용
○ 2017~25년 동안 긍정적 대외경제환경에서 연평균 7~13.5%, 부정적 대외경제환경에서 3~8.2%의 경제성장 전망
○ 국제기업경영(Doing Business) 지수 세계 20위로 상승(2018년 76위, 2019년 69위 기록)
○ 2025~35년 평균 4.5~5%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목표
○ 농업 생산성 6.9배, 섬유산업 수출 규모 7.5배 및 생산성 5.8배, 에너지 부문에서 천연가스 생산 25%, 금 생산 1.5배, 자동차 생산 40만 대로 증대(2018년 22만 대 생산), 관광 부문의 GDP 비중 14%(2017년 2.8%)로의 상승 목표

자료: <https://uzbekistan2035.uz>

6) <https://strategy.uz> (우즈베키스탄 Development Strategy Center)

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200여 명의 비정부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BUYUK KELAJAK(위대한 미래)'를 통해 2035년까지의 발전전략이 수립하였음. <https://uzbekistan2035.uz/buyuk-kelajak>



## 2.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정책

### 국영기업 및 은행의 민영화 지속 추진

- 2020년 2월 발표된 “2020~2021 경제구조 개혁 로드맵”과 2020년 10월 발표된 “국가자산의 급속한 사유화 개혁”에 관한 대통령령 등을 통해 **농업, 광업, 항공, 에너지 등 주요 부문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3천여 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2020년 3월 기준), 나보이 철강, 우즈벡석유가스, 우즈트랜스가스, 우즈벡 항공, 우즈벡 철도 등 광물, 에너지, 운송 부문의 핵심기업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음. 이들 국영기업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의 50%, 조세의 47%를 점유하고 있음.
- 정부는 전체 국영기업 가운데 70%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79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유지분의 전체 매각을 계획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5년까지 주요 광물기업인 나보이 광업(Navoi Mining)과 알말릭 광업공사(Almalyk Mining)의 지분 10%, 우즈벡텔레콤의 지분 18.8%, 우즈벡 우편공사의 지분 25.4%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영 항공사인 우즈베키스탄 항공(Uzbekistan Airways)의 지분 49%, 우즈베키스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우즈벡네프트가스(Uzbekneftegaz)의 지분 24%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sup>8)</sup>
- 이외에도 2021년 이후 정부의 전력 및 가스 공급독점 폐지와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시장 개방이 계획되어 있음.
- 우즈벡 정부는 2020년 5월 채택된 “2020~2025 우즈베키스탄 은행 시스템 개혁전략”을 통해 은행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체 30개 은행 가운데 13개가 국영은행으로 정부가 전체 은행자산의 84%를 보유하여 은행의 대출이 주요 국영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유망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주요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까지 산업건설은행, 이포테카은행(Ipoteka Bank), 아사카은행(Asaka Bank), 알로카은행(Aloka Bank), 키슈로크퀼리쉬은행(Qishloq Qurilish Bank), 투론은행(Turonbank) 등 주요 6개 은행의 정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임.<sup>9)</sup>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산 규모 최대 은행인 우즈베키스탄국립은행(NBU), 농업 지원 전문은행인 Agro Bank,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전문은행인 Microcredit Bank 등 3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고 있음.

8) <https://www.intellinews.com> 2020년 3월 20일; <http://www.xinhuanet.com> 2020년 2월 28일

9) <https://oxussociety.org> 2021년 2월 12일; <https://blackswan.uz>



- 이를 통해 전체 은행에서 민간 및 외국계 은행의 자산 비중이 2020년의 16%에서 2025년 60%로 증대되고 대출 비중도 28%에서 7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국민들의 은행예금을 늘려 대출대비 예금의 비중을 2020년의 40%에서 2025년에는 50%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 확대: EAEU 옵저버 회원 가입 및 WTO 가입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2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옵저버국으로 가입하였음.
- 전임 카리모프 행정부와 달리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치·경제 협력을 긴밀히 하는 동시에 러시아 주도의 구소련 지역 경제통합기구인 EAEU 가입을 추진해 왔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3년 후 정회원 가입을 통해 에너지, 자동차, 섬유, 농업 등 중점 산업 부문에서 EAEU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EAEU 가입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들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섬유, 자동차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sup>10)</sup> 2019년 우즈베키스탄의 대 EAEU 교역액은 수출 46.5억 달러, 수입 65.1억 달러 등 111.6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1.8%(수출의 38.9%, 수입의 30.7%)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6년 대 EAEU 교역이 수출의 22.9%, 수입의 15.8% 비중을 기록한 것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향후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EAEU 주도국인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은 전체 EAEU 교역의 59.4%에 이르고 있음.<sup>11)</sup>
- 또한 정부는 EAEU 가입을 통해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으며 전체 해외노동자 송금의 80%를 점유하는 러시아로의 이주노동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WTO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WTO 설립이 추진되던 1994년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WTO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가입 협상을 재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까지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뒤 협상을 중단하였고, 2018년 가입 협상을 재개하여 2020년 15년 만에 제4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한국, EU, 미국 등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 무역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IP) 등 WTO 가입을 위한 주요 협상 부문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음.
- 2020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세관절차 단순화와 조화에 관한 교토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가입 법안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WTO 가입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10) 섬유·의류 부문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EAEU 지역(러시아 35%, 카자흐스탄 8%, 키르기즈 8% 등) 수출이 전체 수출의 56%를 점유하고 있음. Export potential of Uzbek textile and apparel, CER May 2019.

11) Nabi Ziyadullaev, Ulugbek Ziyadullaev, Nabi S. Ziyadullaev, Ulugbek S. Ziyadullaev.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tegration opportunities, European Journal of Molecular & Clinical Medicine. Volume 7, Issue 2, 2020. p. 905.



- 또한 2021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투자 파트너십 (Central Asia Investment Partnership)”을 체결함.
- 이 투자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인프라 투자, 민간 부문의 발전 등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강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12월 “2021~2023 투자프로그램 실현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기존의 주요 투자대상인 원자재 부문 이외에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sup>12)</sup>
- 정부는 2023년까지 928.7조 슝(933.7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하며, 이 가운데 375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연도별 외국인투자는 2021년 76.6억 달러, 2022년 93억 달러, 2023년 110.7억 달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투자유치를 통해 2021년에는 226개의 신규 공장 설립과 3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함.

[표 5] “2021~2023 투자 프로그램 실현 방안”에 따른 투자유치 계획

연도	전체(조 슝(억 달러))	외국인투자(억 달러)
2021	251.08 (249.8)	76.6
2022	309.33 (307.7)	93.0
2023	367.93 (365.9)	110.7

자료: <https://invest.gov.uz> (우즈베키스탄 투자청)

- 정부는 투자무역부 내에 한국, 중국, 터키, 일본, UAE 등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함께 2019년 말에는 우즈베키스탄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3년의 투자비자를 제공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10년의 거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을 발표하며 투자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12) <https://invest.gov.uz> (우즈베키스탄 투자청)



## 포스트코로나 시기 빈곤층 지원 정책 강화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2020년 3월 “경제발전과 빈곤감축 정책의 근본적인 재개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와 함께 기존의 경제산업부를 “경제발전 및 빈곤감축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sup>13)</sup>
- 주요 정책 과제로는 빈곤감축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개편,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빈곤축소 정책과 함께 각 지역별 사회·경제 발전, 효율적인 산업정책, 국영기업 경영 효율화, 정부 투자정책 활성화,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국제적 지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음.

13) <https://lex.uz> (우즈베키스탄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 Ⅲ.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문별 산업정책

#### 디지털산업 발전정책

- **(디지털 발전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산업은 아직 발전이 미흡한 수준이나, 최근 전자정부와 국민의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sup>14)</sup>
- ICT 부문의 GDP 비중은 2.2%, 서비스 생산에서의 비중은 6.5%로 평가되고 있으며,<sup>15)</sup>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하이테크 수출(컴퓨터, 전자기기 등)의 비중은 2018년 0.5%, 2019년 0.7%로 낮은 수준임.
- 반면 휴대폰 서비스의 전체 가입자 수는 2012년 2,027만 명에서 2019년에는 3,338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00명당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년의 68.8명에서 2019년에는 101.2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국민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비율도 2012년의 23.6%에서 2019년에는 52.3%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sup>16)</sup>
-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추진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UN의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E-Government Survey 국가별 순위에서 2003년의 174위, 2008년의 109위에서 2020년에는 87위로 현저히 상승하였음.<sup>17)</sup>
- **(디지털 전략 및 정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각 산업의 디지털 방식 적용을 통한 원자재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2020년 10월 “2030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18)</sup>
- 주요 내용으로는 고정 및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인터넷 이용 증가, 국민의 IT 활용능력 향상, e-government 서비스 발전, 정부 차원의 공개 데이터 포털 확대,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한 인프라 개선,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마트 도시 설립, 민간통신 사업자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이외에도 2020년 11월 이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의 5% 이상을 디지털 부문에 지출하도록 하였음. 또한 2021년 8월부터 국민들의 모든 세금과 범칙금의 온라인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음.
- 정부는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타슈켄트 인근에 스마트 시범도시 설립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발전, 디지털산업 발전, 디지털 교육, 디지털 인프라 발전 등 4개 주요 부문에 대한 발전계획을 통해 다음의 구체적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

14) <https://databank.worldbank.org> (세계은행 통계자료)

15) O. Z. Maratdaevna, S. I. Bobokhujayev, T. K. Aitmukhamedova, “Stages of Digital Economy Development and Problems of Use of Modern ICT on Uzbekistan Enterpri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Exploring Engineering (IJITEE), December 2019.

16) <https://data.worldbank.org> (세계은행 통계자료)

17)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제도·디지털정부국)

18) <https://lex.uz>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표 6] “2030 디지털 전략”의 단기 실행 목표

2020~2022년까지 단기 실행 목표

- 인터넷 가능 주거지역 78%에서 95%로 확대, 250만 개의 광역 인터넷망 구축, 2만 km의 고속통신망 구축, 휴대폰 통신망 발전 등 추진
- 다양한 사회·경제 발전 부문에서 400개 이상의 정보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체제 구축
- 58만 7천 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양성(이 가운데 50만 명의 청년은 2019년 말 시작된 ‘1백만 프로그래머’ 프로젝트로 양성)
- 기업의 경영 관리 효율화를 위해 280개의 정보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개발
- 2021년 10월 1일까지 전 지역에 청년,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디지털 교육 센터 설립 (2023년까지 200개의 IT 전문 교육기관 설립)
-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초당 10메가바이트 전송 인터넷 보급, 2022년 1월 1일까지 주요 관광지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 각 지역에 디지털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주로 공공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1만 2,000명에게 실무교육 실시

자료: <https://lex.uz/pdfs/5031048>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 이와 동시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0년 1월에 2020년을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해”로 선포하고 여러 사회·경제 부문에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sup>19)</sup> 이를 통해 ‘전자의회’ 도입과 교육 부문의 인터넷 이용 활성화, 80만 다중인터넷망 구축 및 1만 2,000km 통신망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sup>20)</sup>
- 2020년 4월에는 “디지털 경제 및 전자정부 확산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보건, 토지측량, 사회 보호,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발전을 위한 239개의 프로젝트가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IT 파크 설립)** 정부는 IT 부문 발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와 협력하여 2019년 7월 타슈켄트에 IT 파크를 설립하였음.<sup>21)</sup>
- IT 파크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IT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타슈켄트 IT 파크에 35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4천여 명의 기술자들이 고용되어 있음.<sup>22)</sup>
- 정부는 2022년까지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망간, 호레즘, 굴리스탄, 카라칼팍스탄 등 6개 지역에

19) 2020년 3월 2일 “우즈베키스탄 2017-21의 5대 주요 우선 발전부문 실현에 따른 ‘학문 발전, 계몽, 디지털 경제’의 해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https://www.lex.uz>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20) <https://lex.uz>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21) <https://www.it-park.uz> (우즈베키스탄 IT 파크)

22) <https://www.orfonline.org> AMALIA ERGASHEVA, How Uzbekistan is transforming into a digital society in the time of COVID19



IT 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총 14개의 IT 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IT 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 입주기업 사용 목적 제품의 무관세 통관과 같은 혜택이 제공될 계획임.<sup>23)</sup>

- 또한 정부는 “100만 프로그래머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IT 아카데미를 통해 인력양성과 국민들의 ICT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대외협력)**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파크 설립을 위해 인도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IT 부문 발전을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 중국의 화웨이는 최근 정기적으로 타슈켄트 정보기술대학 학생들을 화웨이 본사로 초청하여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클라우드 기술, 대용량 데이터 기술을 교육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와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간에도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양성, IT 파크 조성, IT 교육 및 기술협력이 추진되고 있음.<sup>24)</sup>

### 녹색경제 정책을 통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 2019년 10월 대통령령으로 “2019~2030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실시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였고 2018년 의회에서 이를 비준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로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 녹색경제 전략을 수립하였음.
- 녹색경제 전략 추진을 위해 경제산업부, 에너지부, 농업부 등 13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함. 이와 동시에 40개 자회사를 운영하는 전력 부문 독점기업인 우즈베크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생산, 운송, 공급 부문의 기업 분할과 민영화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표 7] “2019~2030 녹색경제로의 전환” 전략 실행 목표

실행 목표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축
○ 에너지 효율성 지수를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 비중 감축
○ 2030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5% 증대
○ 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현대적이고 낮은 가격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효율성 20% 증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장비 사용
○ 주요 농작물의 생산성 20~25% 향상

자료: <https://lex.uz> 2019~30 우즈베키스탄 녹색경제 전환 전략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23)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 2020.11.23

24)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 2020.11.23



[표 8] 발전원별 발전용량 전망

단위: MW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30
전통 에너지	1,050.0	1,807.0	1,777.0	2,259.4	10,910.2
전체 재생에너지	24.1	119.8	503.5	542.2	7,387.6
수력	24.1	119.8	204.5	42.2	1,487.6
태양력	-	-	300.0	400.0	4,300.0
풍력	-	-	-	100.0	1,600.0

자료: <https://www.iaea.org/reports/uzbekistan-energy-profile> Uzbekistan energy profile April 2020

[그림 4] 발전원별 발전용량 구성비 전망

단위: %



자료: <https://www.iaea.org/reports/uzbekistan-energy-profile> Uzbekistan energy profile April 2020

- 한편, 석유 및 가스 등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EBRD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 분야 탄소중립(A carbon-neutral electricity sector in Uzbekistan)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50년 동안 이 분야에 GDP의 2%에 달하는 자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sup>25)</sup>
- **(태양광)**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부터 세계은행의 Scaling Solar Initiative\*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5) <https://minenergy.uz>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 나보이, 사마르칸드, 지작 등의 주요 도시들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1차 사업으로 나보이 지역에 아랍에미리트 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2차 사업으로 사마르칸드와 지작에 건설이 추진될 계획임. 3차 사업으로는 부하라, 나망간, 호레즘에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Scaling Solar Initiative**

- Scaling Solar Initiative은 IBRD, IFC, MIG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이며, 국제금융기구가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굴, 금융지원, 자문 등을 실시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기존에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주로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로는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였음.
- 이 사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장기적으로 1GW 규모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9]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계획

단 계	지 역	주요 내용
1차	나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MW 규모로 발전소 건설 추진</li> <li>○ 아랍에미리트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2019년 10월 공사를 수주하였고,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 예정</li> </ul>
2차	사마르칸드/ 지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400MW 규모로 사마르칸드 200MW, 지작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li> <li>○ PPP 프로젝트(BOO 방식, 운영기간 25년)로 추진되며, 2021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li> </ul>
3차	부하라/나망간 /호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MW 규모로 부하라(250MW), 나망간(150MW), 호레즘(100MW)에 건설 추진</li> <li>○ PPP 프로젝트(BOO 방식, 운영기간 25년)로 추진 계획</li> </ul>

- **(풍력)** UAE 기업이 추진하는 나보이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계획되고 있음.
- 2020년 6월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와 UAE의 MASDAR사 간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나보이 지역에 PPP 방식의 500MW 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 앞서 2020년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CWA Power간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나보이와 부하라에 1,0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2개를 건설하는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였음.<sup>26)</sup>

26) <https://www.acwapow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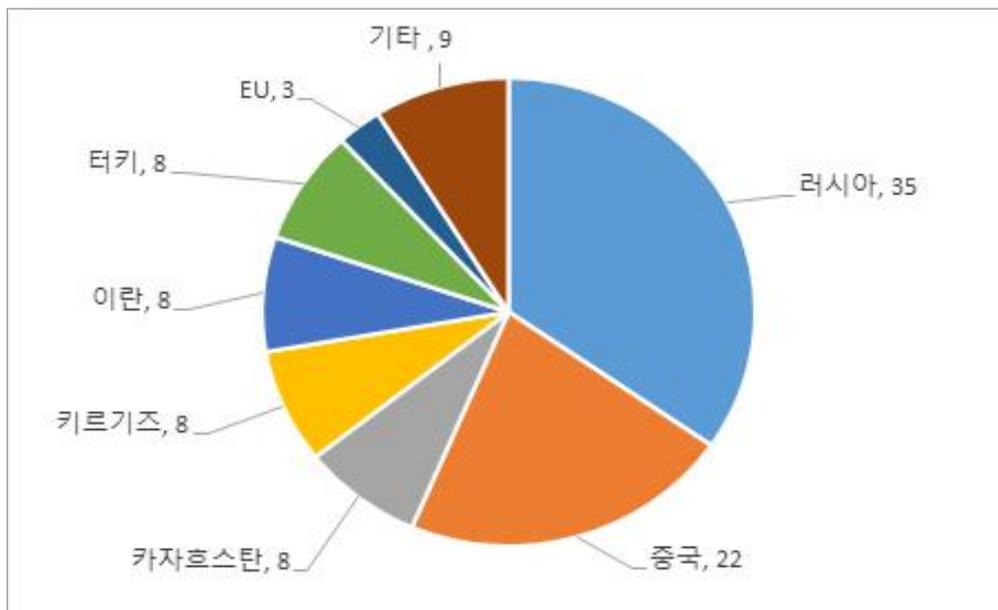


## 제조업 발전정책: 섬유·자동차산업과 자유경제지대

- **(섬유산업)** “2018~20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원면 위주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27)</sup>
  -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GDP 생산의 4%, 제조업 생산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7위의 면화생산국이고 8위의 면화 수출국임. 2018년 기준으로 700여 개의 섬유·의류 관련 기업에 15만 명이 고용되어 있음.
  - 섬유 부문의 수출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6억 6,000만 달러, 2016년 11억 달러, 2020년 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70억 달러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섬유 수출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17.3%(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키르기즈, 터키 등이 주요 수출대상국임.<sup>28)</sup> 품목별로는 의류 및 카페트, 여성용 양말 등이 48%, 면사가 45%, 원단이 7%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5] 우즈베키스탄 섬유·의류 제품 주요 수출국

단위: %



자료: Export potential of Uzbek textile and apparel, CER May 2019.

27)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전체 섬유산업에서 의류 제품의 생산 비중은 2013년의 12%에서 24%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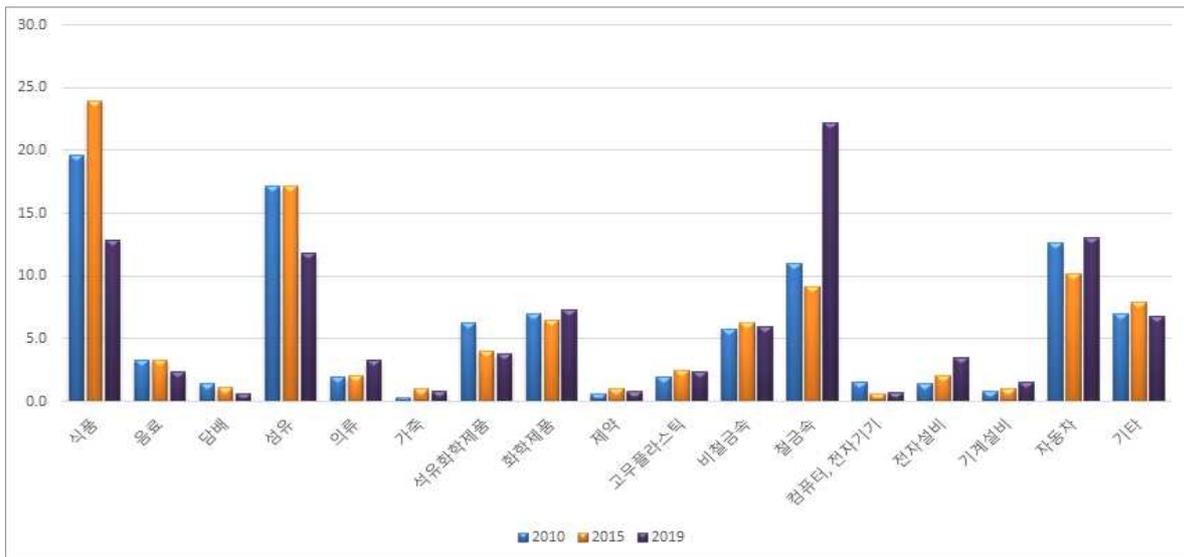
28) Investment and export potential of Uzbek textile industry, UZTEXTILEPROM, 2018;  
<http://www.xinhuanet.com> 2021.1.27.



- 정부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15개의 면-섬유 클러스터 설립과 해외인증제도 도입, 한국 및 터키 등으로부터의 기업 투자유치, 한국과의 섬유 테크노파크 설립 등을 추진해 왔음. 그동안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독일, 인도, 터키 등이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180여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sup>29)</sup>

[그림 6] 우즈베키스탄 제조업의 주요 부문별 비중

단위: %



자료: <https://stat.uz/ru/>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자동차산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2025년까지의 자동차산업 발전정책”과 2019년 7월 “2023년까지의 급속한 발전방안”을 통해 **생산설비 확장 및 현대화, 부품 국산화** 등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sup>30)</sup>
- 2018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산업은 GDP의 6.6%, 제조업 생산의 11.7%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산업으로 70여개 관련기업에 2만 5천 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음.
- 정부는 생산규모를 2018년의 연 22만 대에서 2025년에는 30만 대로 1.4배 증대시키고, 수출 규모는 4,700대에서 2만 5,700대로 5.5배 증대시키는 동시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조립생산 비중을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25년까지 고용인원을 2018년의 2만 5천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늘리고 CIS 외에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29) <https://www.rbasia.uz/textile-uzbekistan>

30) <https://trans.uz>; <https://anhor.uz>



- 우즈베키스탄 최대 자동차 기업은 승용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영 UzAutoMotors<sup>31)</sup>이며, 우즈베키스탄과 일본기업(Itochu, Isuzu) 합작의 버스 및 트럭 전문자동차 회사 SAM Auto, 우즈베키스탄과 독일 기업(MAN Nutzfahrzeuge AG)의 합작 회사 MAN Auto 등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최근 중국 Sinotruck사가 진출하여 국영 자동차산업공사(Uzavtosanoat), MAN과 합작으로 트럭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 (자유경제지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유경제지대(FEZ: Free Economic Zones)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21년 3월 기준 22개의 산업, 제약, 농·어업, 관광 분야의 자유경제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sup>32)</sup>, 전체 제조업 생산의 3.3%(2020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음. 2020년 10월 기준 자유경제지대에는 5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요 생산품으로는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이 17.3%로 가장 많고 이어 금속 15.2%, 식료품 14.2%, 전자 8.8% 등의 순서임.<sup>33)</sup>
-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1,0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에는 10년간, 500만 달러~1,000만 달러 투자기업에는 7년간, 300만~500만 달러 투자기업에는 5년간, 30만 달러~300만 달러 투자기업에는 3년간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31) UzAutoMotors는 1996년 현지에 자동차공장을 설립한 한국의 대우자동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2008년 이 자동차회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지분 75%, GM 지분 25%의 GM Uzbekistan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영 자동차산업공사가 GM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UzAutoMotors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

32) <https://invest.gov.uz/investor/sez-i-mpz>

33) <https://uz.sputniknews.ru>



## IV.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현황 및 전망

### 제도적 협력에 기반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양국 간 **무역협정**(STEP,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체결**을 통해 산업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은 2021년 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무역협정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음.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STEP 무역협정은 새로운 FTA 모델로, 양국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과 FTA 추진 경험을 공유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전망되며, 협정 체결은 주변 신북방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WTO 가입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이 양해각서는 가입 지원을 위한 공동자문위 구성, 전문가 자문, WTO 가입의 경제적 영향 평가,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백지아 대사가 2018년 7월 이후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5년 만에 개최된 제4차 작업반 회의의 의장을 맡은 바 있음.
- WTO 가입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WTO 가입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자문 활동은 향후 양국 간의 교역, 투자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농업 분야의 기술지원·투자 및 정책자문을 통한 협력 추진

- 한-우즈베키스탄 간에 **섬유 산업과 농업 분야의 기술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분야의 협력이 유망하며, 이는 실질적인 산업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2019년 타슈켄트에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 교육실험 등이 가능한 '한-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를 개소하였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기술·장비와 자국의 면화, 노동력을 결합하여 주요 산업인 섬유산업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섬유테크노파크를 통한 기술협력으로 양국 간의 섬유 및 의류 생산 협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한국은 2016년부터 ODA 사업을 통해 농기계 장비 제공,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한-우즈벡 농기계 R&D 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농업기술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향후 이 센터를 통한 기술협력을 토대로 양국 간 농업 합작생산과 신품종 개발 등 농업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유경제지대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지대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자유경제지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자문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들은 나보이, 안그렌 등의 자유경제지대에 진출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자유경제지대 투자를 통해 현지 시장 진입을 모색할 수 있음.<sup>34)</sup>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EAEU의 옵저버로 가입하고 2~3년 후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지 생산을 통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EAEU 국가로의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하여 자유경제지대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동안 한국정부는 KSP 사업을 통해 현지에 최초로 설립된 나보이 자유경제지대 구축과 나보이 공항의 운영 및 물류설비 현대화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경제청이 안그렌 자유경제지대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에너지·광업 부문 협력

- 2021년 1월 SK건설이 '무바렉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 독점 개발권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에너지 부문의 노후설비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sup>35)</sup>
- 이 사업에는 한국의 에너지공단과 SK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터키 등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사업의 독점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이번 성과를 통해 향후에도 발전소 노후설비 개선, 전력망 개선 등 에너지 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9월에는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광물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이 센터의 설립은 2017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희소금속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알말릭 광업공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공동 협력을 통한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설립이 결정되었음. 이후 센터 설립을 위해 '알말릭 광업공사' 연구원들의 한국 연수, 센터에 대한 한국의 기자재 공급 등의 협력이 진행되었음.

34) 「중앙아시아 경제특구 현황과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4) 참조

35) <http://www.gasnews.com> 가스신문 2021년 1월 29일.



- 이 센터의 설립은 우즈베키스탄에 풍부한 텅스텐(생산량 세계 19위, 매장량 세계 6위)이나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12위, 매장량 세계 10위)의 향후 한국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희소금속 가공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국산장비 공급 등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존의 에너지 및 광물 부문 협력성과를 토대로 에너지 노후설비 개선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광물 부문에서의 양국간 기술 및 연구협력, 장비지원, 광물 도입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산업 협력 확대 추진

- 2021년 1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산업 부문에서의 공동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정보교환** 등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sup>36)</sup>
- 양해각서의 협력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친환경·지능형 농기계, 송·배전, 스마트 미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무역, 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인적자원 육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이 협력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연구, 공동사업 발굴, 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 무역경제공동위를 통해 디지털 협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합의되었음.
- 또한 2020년 1월 양국 정부는 타슈켄트에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을 비롯한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국 전문기관 간 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부문의 협력 성과를 통해 향후 정부조달 시스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전자시스템 구축에서 한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한국 정부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안그렌 경제특구의 **스마트시티 조성 자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의 ICT 기반 신도시(스마트시티)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이러한 디지털 협력과 인프라 개발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의 점진적인 도시화 진행으로 향후 도시 개발과 교통·통신·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됨.

36)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 전진기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에 디지털 K-뉴딜 접목」. 2021.1.28.



## 포스트코로나 시기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 확대 유망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인구 증대, 도시화 등으로 **환경부문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된 우즈베키스탄은 이 부문들에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시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파견되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또한 한국은 EDCF 사업을 통해 아동전문병원 설립,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 조성, 타슈켄트 제약 클러스터 파크 구축 등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문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최근 양국 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등의 개최를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와 디지털 분야 연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기술협력과 함께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 환경 부문에서도 2020년 말 한국은 사막화와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랄해 인근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UNDP 다자신탁기금에 2020년 80만 달러, 2021년 20만 달러 등 모두 1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양국은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도 의료기관 설립, 보건 자문, 디지털 연계 의료협력 등 관련 부문에서 협력 확대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참 고 문 헌 >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 전진기지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에 디지털 K-뉴딜 접목」. 2021.1.28.
-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 2020.11.23
- ERGASHEVA A. "How Uzbekistan is transforming into a digital society in the time of COMD19" (<https://www.orfonline.org>)
- Export potential of Uzbek textile and apparel, CER May 2019.
- IEA. Uzbekistan energy profile April 2020
- Investment and export potential of Uzbek textile industry, UZTEXTILEPROM, 2018;
- Nabi Ziyadullaev, Ulugbek Ziyadullaev, Nabi S. Ziyadullaev, Ulugbek S. Ziyadullaev.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tegration opportunities," *European Journal of Molecular & Clinical Medicine*. Volume 7, Issue 2, 2020.
- O. Z. Maratdaevna, S. I. Bobokhujaev, T. K. Aitmukhamedova, "Stages of Digital Economy Development and Problems of Use of Modern ICT on Uzbekistan Enterpri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Exploring Engineering (IJITEE)*, December 2019.
- <http://www.gasnews.com> 가스신문
-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통계
- OUTLOOK 2021 Uzbekistan <https://www.intellinews.com> 2021.1.5
-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제도·디지털정부국
- <https://data.worldbank.org> 세계은행 통계자료
- <https://www.it-park.uz> 우즈베키스탄 IT 파크
- <https://stat.uz>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https://minenergy.uz>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 <https://invest.gov.uz> 우즈베키스탄 투자청
- <https://strategy.uz/> 우즈베키스탄 Development Strategy Center
- <https://lex.uz> 우즈베키스탄 정부 법령 온라인자료 사이트
- <https://trans.uz> 우즈베키스탄 운송·물류 사이트
- <https://uzbekistan2035.uz> 2035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 <https://www.gazeta.uz>
- <https://www.acwapower.com>
- <http://www.xinhuanet.com>
- <https://www.rbasia.uz/textile-uzbekistan>
- <https://anhor.uz>
- <https://uz.sputniknews.ru>